

---

---

# 식물성 박류 수급의 적신호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

## ■ 대두가공업계와 사료업계의 줄다리기

배합사료의 원료를 크게 구분하면 곡류, 강피류, 식물성단백질, 동물성단백질, 무기물, 기타 6개로 대구분이 되며 이 중 식물성 단백질원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두박이다.

이 대두박은 곡류의 주종원료인 옥수수와의 합계 배합사료원료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85년 12월말 기준 전체원료사용량중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가구성면에서 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두박은 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로서 가축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이 대두박의 공급경로는 크게 두형태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국내 대두가공삼사인 동방유량, 제일제당, 삼양유지에서 대두를 수입해다가 기름을 짜고 남은 국산 대두박(?)을 사료공장에 공급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사료협회나 축협 등 실제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수요자단체가 외국에서 직접 대두박을 수입하여 사료용 원료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두가지 유통경로를 둘러싸고 값싼 외국산 대두박을 직접 수입하려는 사료업계의 입장과 국내산 대두박의 재고누증등을 내세워 국내산

대두박의 우선적 사용을 주장하는 대두가공삼사와의 입장이 늘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두업계의 줄다리기는 비단 대두박 수입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산 대두박가격의 가격결정을 놓고도 늘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두업계의 가격싸움은 어찌보면 사료업계와 대두가공삼사와의 문제라기 보다는 최종적인 부담자이자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양축가와 식용유소비자의 문제이기도 하여 더욱 미묘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금년도 국제곡물시세는 옥수수, 대두, 소맥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장미빛 경제전망이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되던 12월 30일 돌연 국내산 대두박가격이 벌크기준 kg당 15원(중전 205원/kg에서 220원/kg) 인상됨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인하 경쟁에 휩싸여 있던 사료업계는 년초부터 원료가격인상이라는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호에는 최근 사료업계의 핫이슈이자, 배합사료가격불안정마저 야기시킬지도 모를 국산대두박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국내대두가공 삼사측에서 내세우는 인상배경과, 이에 대한 사료업계측의 반응, 기타 식물성 대체원료에 대한 전망 및 배합사료가격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동면에서 깨어나는 대두박 가격

우선 대두박가격의 인상과 관련하여 대두가 공삼사에서 주장하는 인상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대두박 원료인 대두수입시 그동안 공제받 아오던 의제매입세 감면비율이 종전의  $\frac{10}{100}$ 에서 금년 1월 1일부로  $\frac{5}{105}$ 로 축소됨에 따라 4.5% 인상요인이 생겨났고, 지난해 대두시세가 크게 하락했던것은 사실이나 US달러시대의 강세로 인해 환차손이 크게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 있다. 그밖에도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치닫던 국제대두시세가 강세로 발전되면서 10월대 비 톤당 20불 가까이 상승했고 앞으로도 더욱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대두가공삼사의 주장에 대해 사료업계에서는 의제매입세 공제율변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환차손발생은 이미 지난해 국산대두박 가격인하시 감안되었어야될 과거지사의 일이고, 지난해 8월, 1일 대두박가격이 인하된 이후에도 국제대두시세가 10월까지 계속 떨어졌다는 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국제대두시세가 다소 강세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내산 대두박가격이 215원이던 지난해 1월 1일 수준에도 크게 못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대두시세가 안정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국제곡물수급예측기구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는 점도 들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대두박 가격상승요인이 실제 원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달후인 금년 3월이후에나 나타날 것임에 비해 12월 30일부터 서둘러 인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료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와같은 국내산 대두박 가격인상이 국제 대두박 수급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취해졌다는 것이 사료업계를 더욱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튼 이번 대두박 가격인상으로 인해 그동안 동면하는 듯 싶었던 두업체의 가격싸움은 다시 기지개를 켜고, 국제곡물시세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배합사료 가격인하 경쟁에 휩싸여 있던 시점에서 취해진 일이라는 점에서 사료업체는 물론 양축가들에게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 악화되는 세계 대두박 수급사정

한편 국내산 대두박가격이 여위치 못할 경우 사료업계에서 휘두를 수 있는 비장의 무기는 “외제 대두박 수입”을 들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이것마저 신통치 못한 형편이다. 즉 지난해만 하더라도 미산대두박에 비해 30~40불이나 싼 중공산 대두박이 홍콩시장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재고소진으로 인해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설령 아무리 싼 물건이 많다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무작정 외제대두박만 수입해다 쓸수 없게 되어있다. 적당히 가격견제를 해가면서 국내가공 대두박과 수입대두박을 함께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사료업계의 입장인데 그나마 최근에 대두박 수입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금년 11월 13일 미농무성이 발표한 세계 대두박 수급사정을 보면 금년도 세계 대두박 기초재고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기초재고의 감소현상은 세계적인 기름수요증가로 인한 것인데, 특히 세계 대두박시장을 좌우하는 남미 시장에서 더욱 심한 편이다. 즉 세계제일의 대두박 공급국가인 브라질이 지난해에 비해 기초재고가 32% 감소하였고, 아르헨티나도 27% 감소하였다. 그리고 세계 대두박 생산량이 금년에는 2.1% 증가될 전망이다, 기말재고는 여전히 감소될 것으로 나타나 수급사정이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이와같은 이유들로 인해 미국산 대두박

시세는 지난해 6월이후 계속 강세현상을 보여 지난해 6월기준 C&F 톤당 164불이었던 것이 지난해 12월기준 200불 수준으로 무려 6개월 사이에 24%나 올랐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지난해 11월 까지만 해도 중공산 대두박이 값싸게 공급되어 그런대로 별걱정이 없었으나 11월이후 중공산 대두박재고가 소진되면서, 이제 수입대두박 역시 값비싼 미산 대두박에만 매달려야할 실정이다.

## ■ 대두박의 대체품목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값싸고 질 좋은 배합사료를 양축가에게 공급해야될 사료업체가 외제 대두박 수입이 어려워진 여건에서 국내산 대두박 가격의 인상을 맞은 채, 별다른 방도는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대두박을 대체할수 있는 식물성박류, 즉 면실박, 채종박, 해바라기박, 그리고 루핀시드 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흔히 우리는 식물성 박류하면 대두박만 생각하나 대두박이외에도 채종박, 면실박, 아마박, 참깨박, 들깨박, 등이 있다. 이중 채종박, 면실박, 해바라기박은 이미 원료구매에 있어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 일부 사료회사가 이미 수입하여 이용한 바있고, 루핀시드 역시 지난해 부터 수입되어 단백질 대체원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두박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채종박, 특히 캐나다산 채종박(Canola)만 하더라도 대두박의 75%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가격면에 있어서도 저렴하여 경제성을 지니고 있으나 일부 사료공장에서는 아직도 사용을 기피하고 있고, 이용하더라도 소량 구매에만 치중하는 소심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대두박의 노란 색깔이 채종박의 우중충한 색깔보다 보기 좋다는 한국

적 사고방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불과 국산 대두박의 가격인상이 있기 하루전까지만 해도 캐나다산 채종박 희망구매량이 선적짜이즈를 채우지 못했던 실정이었다.

뿐만아니라 루핀시드 역시 지난해의 시험구매에서 비교적 호평을 받았으나 일부 공장의 분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용이 지연되어오다, 최근 일본이 한국의 시험구매에 자극받아 거의 전량을 독점계약해버림에 따라 이제는 살래야 살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다.

따라서 이번 국내산 대두박가격의 인상은 그 시시비비는 차치하고라도 이와같은 소극적인 사료업체의 원료 구매자세에 대해 경종을 울려준 셈이 되었고, 앞으로 기타 박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어 넣어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새로운 식물성박류 개발에 주력해야

다른 한편 이번 대두박 가격인상을 계기로 지금의 배합사료 가격 추세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너무 우려해서도 아니되고, 그렇다고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여건이다.

즉 대두박 하나만 놓고볼때 인상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으나, 금년부터 배합사료 원료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고, 앞으로 대두박 가격이 국내 가공부산물인 강피류나 식물성 박류 및 어분 등의 가격상승을 주도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리고 실제 금년도 국제곡물시세가 하락세라는 표현은 지난해에 비해 금년도 시세가 낮아질 전망이라는 것이지 지난해 낮은 시점의 곡물시세보다 계속 더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즉 배합사료 가격은 원료구매가격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판매경쟁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의 곡물 수확기이며, 가격이 가장 낮은 시점이던 10월 원료시세까지 이미 배

합사료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향후 점진적인 강세현상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옥수수, 수수, 소맥, 타피오카등이 지난해말 가격수준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가장 큰 주종원료인 옥수수가 태국산 옥수수로 인해 값싸게 수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 곡류시세의 강세현상을 카바하

고는 있으나 앞으로 태국산 옥수수마저 여위치 못할 경우 배합사료 가격안정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료업계에서는 보다 안정된 가격의 배합사료공급을 위해 값싸고 질 좋은 원료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양축가들도 최근의 원료시장 변화를 주시하면서 지속적인 가격하락만을 기대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표 1. 대두 및 대두박 시세 변동현황

	8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86년 1.20
미산대두 (US\$/TON)	255	252	254	254	245	246	236	220	217	215	220	226	233
미산대두박 (US\$/TON)	195	182	178	174	165	164	170	173	182	196	201	205	
국산 대두박 (원/kg)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05	205	205	205	205	220

\*미산 대두 및 대두박은 C&F 수입가격 기준임.

토마상식

우유의 10대 효과

- ① **균형된 영양분이 보급된다** : 우유에는 매일 섭취하지 않으면 안될 필수 영양소가 고루 들어 있다.
- ② **혈압이 낮아진다** : 인지질 레시틴이 가수분해되어 생성되는 「콜린」이 혈압을 낮춘다.
- ③ **빈혈을 방지한다**. 항 악성빈혈 비타민인 우유 속의 비타민 B<sub>12</sub>가 빈혈을 방지한다.
- ④ **암의 발생을 방지한다** : 우유의 음용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암의 발생율이 적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다.
- ⑤ **소화를 좋게 한다** : 카페인과 유당이 칼슘과 철의 흡수를 좋게 한다.
- ⑥ **이를 튼튼하게 한다** : 칼슘은 이와 뼈를 튼튼하게 한다.
- ⑦ **머리를 좋게 한다** : 유당이 가수분해되어 생성되는 「가락토스」는 뇌와 신경의 발육에 빼놓을 수 없는 영양분이다.
- ⑧ **피부를 아름답게 한다** : 질이 좋은 단백질은 잔주름을 방지하고 비타민 A<sub>1</sub>, B<sub>2</sub>는 피부에 탄력성과 광택을 준다.
- ⑨ **지방 축적을 막는다** : 탄수화물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유당은 지방의 침착에 의한 비만을 방지한다.
- ⑩ **발육을 촉진한다** : 좋은 질의 단백질, 칼슘, 비타민B<sub>2</sub> 등은 몸과 팔다리의 성장을 왕성하게 한다.